

소비자 요청사항 조치 보고서

- 제 1 차 -

2019. 3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소통협력과

소비자 요청사항 조치 보고서(1차)

□ 주요 내용

- 1분기 식의약 소비자니즈 23건 발굴(단체장 간담회 18건, 소통단 회의 4건, 단체 요청 1건)
 - 헤나염모제 단속 등 8건 조치 완료
 - 타미플루 부작용 정보제공 등 15건 추진 중

| 소비자니즈 | 조치방안(주관부서) | 출처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조사·검증 및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 필요 | ○ 타미플루 성분인 ‘오셀타미비르’와 정신신경계 부작용의 연관성 역학조사 수행(~11월) 및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(12월) (의약품안전평가과, 추진 중) | 소비자 단체장 간담회 (‘19.2.14) |
| 2. 홍역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요청 | ○ 홍역백신 접종 정보제공은 질병관리본부(예방접종관리과) 소관으로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함(19.3.20 메일, 완료) | |
| 3. 헤나염모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요청 | ○ 식약처·복지부·공정위 합동점검, 수거·검사, 광고 차단 등 조치 완료 (화장품정책과, 완료) | |
| 4. HACCP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| ○ HACCP 적용업소 대상 교육(연중) 및 HACCP 교육훈련기관 강사 교육(연2회) 실시 ○ 전년도 사후평가 부적합 업체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○ HACCP 기준 위반에 대한 즉시인증취소제(One-strike out) 범위 확대(12월) ○ 외국인 종사자용 HACCP 교육자료 제작배포(6월)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추진 중) | |
| 5.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| ○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(2.23) ○ 농가 등 현장방문, 산란일자 표시실태 모니터링(3월~)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완료) | |
| 6. OEM 제품에 제조원 표시 필요 | ○ 현재 OEM 식품의 실제 제조원에 대해 표시하고 있음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완료) | |
| 7. 일본산 수산물 WTO 상소 관련 대책 | ○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염된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WTO분쟁절차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임 ○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유지 (수입식품정책과, 추진 중) | |

| 소비자니즈 | 조치방안(주관부서) | 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8. GMO 완전표시제 조속시행 요청 | ○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지속운영 (~12월)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추진 중) | |
| 9.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 관련 조치 필요 | ○ 스페인 정부 확인 후 이베리코 제품 관리 방안 마련 및 소비자 대상 홍보(보도자료 배포 등) (4월) ○ 이베리코 제품 허위표시·광고 행위(쇼핑몰 포함) 상시 관리(사이버조사단, 지방청, 지자체) *수입업체, 식육판매업체, 음식점 등 영업자 대상 계도(4월), 지도·점검(5월~) (수입유통안전과, 수입검사관리과, 신중유해물질팀, 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사이버조사단, 추진 중) | |
| 10.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필요 | ○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(~12월, 7개소) * 광주 각화, 울산, 강원 춘천, 충북 청주, 전북 전주, 경북 포항, 경남 창원내서 (농축수산물안전과, 추진 중) | |
| 11. 산란일자 관련 양계협회 소송 진행 상황 | ○ 식약처·농식품부- 양계협회 합의 도출로 소송 취하(2.21)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완료) | |
| 12. 의료기기 폐기물 관리 필요 | ○ 현행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한 폐기물 중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○ 가정에서 나오는 주사기, 주사바늘 등 폐의료기기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 예정(환경부 폐자원관리과) (의료기기정책과, 완료) | |
| 13. 한약재 품질관리 필요 | ○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및 특별 수거·검사 병행 실시(연중) ○ 한약재의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 확대(9월) (한약정책과, 추진 중) | |
| 14. LED등(燈) 안전관리 필요 | ○ 우리 처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「의료기기법」 위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(의료기기관리과, 완료) | |
| 15. 외국산 농산물 과장광고 관리요청 | ○ 시기별 인기 제품에 대하여 기획 모니터링 추진(분기별 1회) ○ 위반업체 사이트 차단,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○ 홈쇼핑·쇼핑몰 및 민원신고 등을 분석하여 테마 선정 (사이버조사단, 추진 중) | |
| 16. 가정간편식, 밀키트(meal kit) 등 관리 강화 필요 | ○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합동점검 추진(4월) - 즉석섭취·조리식품, 신선편의식품, 밀키트(meal kit) 제조·판매업체 집중 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 (식품안전관리과, 추진 중) | |

| 소비자니즈 | 조치방안(주관부서) | 출처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7. GM감자 수입승인 재고 요청 | ○ 현재 GM감자는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, 승인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음 ○ GM감자 위해성 주장 관련하여 GMO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토하겠음 (신소재식품과, 추진 중) | |
| 18. 식약처 용역사업 예산 증액 필요 | ○ '18년에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소비자 단체에 위탁 ○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더 많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음 (소통협력과, 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수입식품정책과, 건강기능식품정책과,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, 신소재 식품과, 화장품정책과, 추진 중) | |
| 19. 재래시장 내 건강원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필요 | ○ 건강원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)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음 (식품안전관리과, 추진 중) | |
| 20. 목장형 유가공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| ○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일제점검 시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제조·판매하는 치즈, 우유 등 수거검사 실시(6월) (농축수산물안전과, 추진 중) | |
| 21. 의료인이 출연하는 종편채널과 연계한 수입건강식품 과장 광고 단속강화 필요 | ○ 민간 광고 검증단 구성·운영(4월~) * 의사, 교수, 법조인, 업체 및 소비자 등 전문가pool 구성(약 100명) ○ 영업자, 소비자 등 대상 온라인 허위·과대광고 교육 강화(3월~) (사이버조사단, 추진 중) | 국민 소통단 실무회의 (19.3.5) |
| 22. 식약처 분야별 부작용(이상사례) 민원 신고 전화번호 단일화 요청 | ○ 정부민원안내(110콜센터) 연계하여 우리 처 대표전화 1577-1255 안내하고 있음 ○ 분야별 부작용(이상사례) 신고 전화번호를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요청함 (고객지원담당관, 완료) | |
| 23. 김치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검토 요청 | ○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(~'20) 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 (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추진 중) | 소비자 시민모임 문서요청 (19.2.26) |

[붙임] 소비자 요청사항 조치내용

1.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조사·검증 및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의약품안전평가과)

<주요 내용>

- (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관련)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조사·검증할 계획 여부 및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 필요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타미플루 복용 시 이상행동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('07년~), 안전성 서한 배포('18년)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추진
 - 독감치료제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리플릿('17년), 카드뉴스·동영상('18년) 마련·배포 및 처방·조제 시 실시간 안내
 - * 현재까지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간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며, 이상행동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
- 오셀타미비르(타미플루 성분)와 정신신경계 부작용의 연관성에 대하여 약물역학조사 주제로 선정(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, '19.2월)

□ 조치방안

- 오셀타미비르 정신신경계 부작용 약물역학조사 수행(~11월)
 - 국내 병원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오셀타미비르 처방여부에 따른 정신신경계 부작용 발생 여부 분석 예정
- 연구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(12월)

2. 홍역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요청

[소비자단체장간담회 19.2.14]

(바이오의약품정책과)

<주요 내용>

- (홍역백신접종 거부 관련 이슈) 홍역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

☐ **진행단계 : 완료**

☐ **관리현황**

- 홍역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(예방접종관리과) 소관으로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메일로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알려드림('19.3.20)

☐ **조치방안 : 해당없음**

3. 헤나염모제 피해사례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요청

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화장품정책과)

<주요 내용>

- 헤나염모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요청

□ 진행단계 : 완료

□ 관리현황

- 식약처, 복지부,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 실시(2월)
 - (식약처) ① 언론 및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 수거·검사 ② 검사 결과 부적합 및 표시기재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예정 ③ 온라인 광고 위반 699건에 대한 지자체 통보 및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
 - * (검사항목) 납, 니켈, 비소, 수은, 안티몬, 카드뮴, 미생물, 화학염모제(20종), 잔류농약(5종), 회분 등
 - ** (검사결과) 미생물한도초과 20개 제품, 주성분 함량 기준 미달 1개 제품, 표시기재 위반 17개 제품
 - (복지부) 9백여개 헤나방 업소 실태점검 및 무면허·무신고 업소 집중 단속, 11개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등 조치
 - (공정위) 헤나염모제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(3개)에 대해 현장 조사하여 반품·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토 및 거짓·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한 위반여부 검토 중

□ 조치방안

- 피해사례 원인분석 및 모든 헤나제품에 대한 수거·검사 등 확대

4. HACCP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

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○ HACCP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

- 정부 인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, 과연 정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지 궁금함

* HACCP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
☐ 진행단계 : 추진중

☐ 관리현황

○ 불시점검 및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인증취소, 관련서류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추진 중

* HACCP 사후평가 시 모든 현장평가 대상 업소에 대해 전면 불시평가('19.1~)

- HACCP 인증제도가 연착륙되면 점차적으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

○ HACCP 적용업소 대상 교육 실시(연중)

- 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HACCP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행정지도 병행 실시
- HACCP 교육훈련기관* 강사 등 대상 교육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역량 강화(연2회)

* 식약처에서 지정한 HACCP 교육훈련기관에서 HACCP 업체 영업자 및 팀장 대상 의무교육 실시

- 전년도 사후평가 부적합 업체에 대해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

☐ 조치방안

○ HACCP기준 위반에 대한 즉시인증취소(One-strike-out) 범위 확대('19.12)

○ 외국인 종사자용 HACCP 교육자료 제작·배포('19.6)

5.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-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 전 시범운영이 아쉬움

☐ 진행단계 : 완료

☐ 관리현황

- 제도 시행전 농민단체가 참여한 실무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산란일자 표시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함
 - 2.23 시행하였으나 6개월간은 계도하여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

☐ 조치방안

- 달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T/F 구성·운영('19.3.~)
 - * 식약처, 농식품부, 대한양계협회, 한국계란유통협회, 소비자단체, 학계 등 참여
- 농가 등 현장방문, 산란일자 표시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유통업계 간담회 등 추진('19.3.~)

6. OEM 식품의 제조원 표시 필요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○ 대기업 OEM 제품에 실제 제조원 표시 필요

☐ 진행단계 : 완료

☐ 관리현황

○ 현재 OEM 식품의 실제 제조원에 대해 표시하고 있음

☐ 조치방안 : 해당없음

7. 일본산 수산물 WTO 항소 관련 대책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수입식품정책과)

<주요 내용>

- 후쿠시마 원전 관련 WTO 패소할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음.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.
- 그 외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, 기준치 이내 검출되면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.
- 일본산 농·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일 공개되는 식약처 홈페이지(방사능 안전관리 정보)와 매주 배포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음

□ 조치방안

-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염된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, 향후 WTO 분쟁절차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임.
-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유지

8. GMO 완전표시제 조속시행 요청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- GMO 완전표시제의 조속 시행을 요청함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『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』 구성·운영('18.12.12~)
 - 중립적 외부 갈등조정전문기관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협의회 구성·운영
 - GMO 표시제에 직접적·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거나, 소비자·시민 등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로 구성
 - * 협의회(17명) : 소비자·시민·생산자·학부모 단체 등 8명, 산업계 8명, 위원장 1명
 - GMO 표시제 전반의 이슈·현황 등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논의
 - * 그간 논의사항(1~4회) : 협의회 운영규정 및 향후 논의 의제 협의, 국내·외 GMO 표시제 현황 등 검토

□ 조치방안

- 『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』 지속 운영(~'19.12)
 -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추진

9.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 관련 조치 필요

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수입유통안전과, 수입검사관리과, 신종유해물질팀, 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사이버조사단)

<주요 내용>

- 수입 이베리코 흑돼지 조사결과 일부 백색돼지가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조치 필요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수입 시 제품명에 ‘이베리코’ 기재, 신고수리(위생증명서 확인)토록 표시 유도 (1.31)
- 스페인 정부에 이베리코 관리상황(등급 표시 등)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 (2.21)
 - 공식 입장 확인 후 이베리코 돼지고기(생육) 등급 표시 금지 등 관리방안 검토
 - * 스페인 대사관 면담(2.18) : 하몽(햄) 원료(뒷다리) 이외에 생육에는 등급 미적용 입장
- 흑색과 백색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추진 중 (2~3월)
 - 돼지 흑모색 판별 유전자 분석법을 신속히 확립하고, 이베리코 제품 유전자 검사(모니터링)하여 진위 판별할 계획
- 이베리코 판매 음식점, 식육판매업(정육점포함) 등 대상 등급별 가격 차등 판매 및 흑돼지 표시·광고여부 등 실태조사 (2.18~3.8 / 250여개소)

✓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광고 및 관리 방안

- 포장육의 품종·등급 표시는 국내·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베리코 제품에만 품종·등급 표시를 강제하기 어려움 다만 이베리코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·광고하는 행위 관리 예정

□ 조치방안

- 스페인 정부 입장 후 이베리코 제품 관리 방안(실태조사 결과 포함) 소시모에 공유 및 소비자 대상 홍보(보도자료 배포 등) 방안 함께 모색(4월예정, 소시모 협의)
- 이베리코 제품 허위표시·광고 행위(쇼핑몰 포함) 상시 관리(사이버조사단, 지방청, 지자체)
 - * 수입업체, 식육판매업체, 음식점 등 영업자 대상 계도(4월), 차후 지도·점검(5월~)

10.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필요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농축수산물안전과)

<주요 내용>

-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청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
 - 현장검사소(4개소)* 신규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('15년, 28억원)
 - * 장비 지원(14억원×4개소×국고 50%), 인천 구월, 대전 오정, 충남 천안, 경북 안동
 -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,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「식품안전 개선 종합 대책」 발표('17.12.27,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)
 -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위한 시·도 의견 수렴(3회) 및 현장방문(5회)
 - 현장검사소 신규설치 '19년 예산·인력 확보·지원: 49억원(국고), 56명(지자체)

□ 조치방안

-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(~12월, 7개소)
 - * 광주 각화, 울산, 강원 춘천, 충북 청주, 전북 전주, 경북 포항, 경남 창원내서

11. 산란일자 관련 양계협회 소송진행 상황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○ 달걀 산란일자 시행에 맞서 양계협회의 소송 진행 상황

☐ 진행단계 : 완료

☐ 관리현황

○ 식약처·농식품부-양계협회간 합의 도출로 소송 취하('19.2.21)

☐ 조치방안 : 해당없음

12. 의료기기 폐기물 관리 필요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의료기기정책과)

<주요 내용>

- 주사기 등 사용하고 남은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관리 필요

□ 진행단계 : 완료

□ 관리현황

- 현행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한 폐기물 중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의료폐기물¹⁾로 관리하고 있음
- 또한, 가정에서 버린 폐기물 중 질병 유발, 신체 손상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은 같은 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*로 관리

*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

- 현재 지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, 폐의약품,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며(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6조의2)
- 주사기, 주사바늘 등 폐의료기기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할 예정임('19년 중, 환경부 폐자원관리과)

□ 조치방안

-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의견 제출하겠음

1) 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·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5호)

13. 한약재 품질관리 필요(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)

(한약정책과)

<주요 내용>

-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상품화되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수입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관검사
 - 「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」에 따라 한약재 수입시마다 통관검사 실시
- 「대한민국약전」 및 「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」에 한약재 위해 물질 등 기준·규격 설정으로 품질기준 관리 실시

□ 조치방안

-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및 특별 수거·검사 병행 실시(연중)
 -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한약재 검체 채취 및 관능검사 현장에 식약처 직원 참관 및 특별수거 검사 병행 실시
 - *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 연 40회 이상, 교차 점검 연 280건 이상
- 한약재의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 확대(9월)
 - 한약재에 대해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별 관리대상 품목 확대

14. LED등(燈) 안전관리 필요 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의료기기관리과)

<주요 내용>

- LED등(燈)을 피부관리용 제품(의료기기)처럼 과장광고 조치 필요

□ 진행단계 : 완료

□ 관리현황

- LED등(燈)은 공산품으로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·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하는 것은 「의료기기법」 위반임

< 「의료기기법」 제26조제7항 >

⑦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·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(이하 생략)

- 우리 처 사이버조사단에서 공산품의 거짓·과대·오인광고 등 불법 광고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중
 -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, 시정명령,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하고 있음
- 공산품의 오인광고를 최소화하고자 공산품의 「의료기기법」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하여 「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」를 개정('19.3.12)

□ 조치방안

- 우리 처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「의료기기법」 위반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15. 외국산 농산물 과장광고 관리요청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사이버조사단)

<주요 내용>

- 얌, 노니, 모린가 등 수입 농산물 및 이를 환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과장광고 관리 필요

☐ 진행단계 : 추진중

☐ 관리현황

- 소비자 관심제품 집중 기획조사
 - 최근 홈쇼핑에서 다이어트, 디톡스 등 인기 상품에 대하여 허위·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(3~4월)
 - * 노니(액상, 분말, 환)제품에 대한 100% 농축액, 항산화 성분 함량 등 조사

☐ 조치방안

- 시기별 인기 제품에 대하여 기획 모니터링 발굴 및 추진(분기별 1회)
 - 기획 모니터링을 불법유통 근절 시 까지 반복 점검

☐ 향후계획

- 위반업체 사이트 차단,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
- 홈쇼핑·쇼핑몰 및 민원신고 등을 분석하여 테마 선정

16. 가정간편식, 밀키트 등 관리 강화 필요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식품안전관리과)

<주요 내용>

-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,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병원 급식에서 밀키트(meal kit)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

☐ 진행단계 : 추진중

☐ 관리현황

-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전국합동단속 및 수거·검사 실시
 - * 총 5,076개소 점검(118개소 적발), 1,000건 수거·검사(2건 부적합) (2018)
 - * 위반유형: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,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등

☐ 조치방안

-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합동점검 추진(4월)
 - 즉석섭취·조리식품, 신선편의식품, 밀키트(meal kit) 제조·판매업체 집중 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

17. GM감자 수입승인 재고 요청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신소재식품과)

<주요 내용>

-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GM감자 수입승인 재고 요청

☐ 진행단계 : 추진중

☐ 관리현황

- 현재 GM감자는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며, 승인에 대해
확정된 사항은 없음
 - GM감자의 위해성 주장과 관련하여,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
심사가 진행중임

☐ 조치방안

- GM감자 위해성 주장 관련하여, GMO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통해
철저히 검토하겠음

18. 식약처 용역사업 예산 증액 필요[소비자단체장간담회, 19.2.14]

(소통협력과, 식품안전표시인증과, 수입식품정책과, 건강기능식품정책과,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, 신소재식품과, 화장품정책과)

<주요 내용>

○ 식약처 위탁사업 수행시 과업내용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음

□ **진행단계 : 추진중**

□ **관리현황**

○ '18년에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소비자단체에 위탁

| 사업명 | 담당부서 | '18년계약액(백만원, 교육기관) | '19년예산(백만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| 소통협력과 | 310 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| 311 |
| 국민소통단 | 소통협력과 | 79 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| 80 |
| 나트륨, 당류 줄이기 소비자 교육 |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| 60 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| 90 |
| 식품 알레르기 바로알기 교육 | 식품안전표시인증과 | 40 (녹색소비자연대) | 40 |
| 어린이 해섵 바로알기 교육 | 식품안전표시인증과 | 19.5 (녹색소비자연대) | 20 |
| 해섵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 | 식품안전표시인증과 | 19.5 (소비자공익네트워크) | 20 |
| 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 | 신소재식품과 | 63.7 (부산소비자연맹) | 65 |
|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| 수입식품정책과 | 20 (한국소비자연맹) | 20 |
|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맞춤형 교육 | 건강기능식품정책과 | 52.5 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| 50 |
| 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 | 화장품정책과 | 90 (녹색소비자연대) | 90 |

-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
19. 재래시장 내 건강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필요

[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, 19.3.5]

(식품안전관리과)

<주요 내용>

- 도라지청, 생강진액 등 액상차 일부 제품에서 세균 초과 검출(소비자원 보도자료, '19.1.30) 관련, 서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내 호박즙 등 고내는 집(건강원, 즉석판매제조가공업)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요청

☐ 진행단계 : 완료

☐ 관리현황

-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체(건강원 포함)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(지자체)
 - * 건강원(즉석판매제조가공업) 129개소 적발 및 수거·검사 33건(모두적합) (2018)
 - * 위반유형: 자가품질검사 미실시, 표시기준 위반, 시설기준 위반 등

☐ 조치방안

- 건강원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)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(연중)
-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를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강화 요청

20. 목장형 유가공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[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, 19.3.5]

(농축수산물안전과)

<주요 내용>

-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만든 일부 자연치즈에서 대장균,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(소비자원 보도자료 '19.1.29) 관련,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유기농, 친환경을 표방하며 고가에 판매하는 유제품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요청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현황

-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가공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시 위생점검 실시 중(지자체)
 - 위생적 취급 기준,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, 가공품 등의 미생물 규격 준수 여부 등 지속 점검

※ 관련 규정
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제25조(영업장의 출입·수거·검사)제①항에서 도축업, 집유업, **축산물가공업**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**연 1회 이상 위생검사**를 하도록 규정

- 기준·규격에 적합한 유가공품(치즈 등) 제조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안전관리 강화 요청(1.23, 지자체·협회)

□ 조치방안

-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일제점검 시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제조·판매하는 치즈, 우유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실시(6월)

21. 의료인이 출연하는 종편채널과 연계한 수입 건강식품 과장 광고 단속강화 필요 [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, 19.3.5]

(사이버조사단)

<주요 내용>

- 종편 채널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이 출연하여 노니, 아마씨, 브라질 너트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하고(삼겹살 기름으로 혈전테스트 진행 등)
- 채널을 돌리면 이와 관련된 제품(농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)을 판매하는 연계방송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단속 강화 요청

□ 진행단계 : 추진중

□ 관리 현황

-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음
- 의사·한의사 등 전문가 광고 내용에 대한 기획 조사 추진중(3~4월)
- * 의사·한의사 등 전문가 공동 연구·개발 참여 여부 및 보증·추천·제안·사용한다는 내용 등

□ 조치방안

- 홈쇼핑, 종편 등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강화요청(방심위, 3월말)
- 의사 등 전문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(상시)

□ 향후계획

- 민간 광고 검증단 구성·운영(4월~)
- * 의사, 교수, 법조인, 업체 및 소비자 등 전문가pool 구성(약 100명)
- 영업자, 소비자 등 대상 온라인 허위·과대광고 교육 강화(3월~)

22. 식약처 분야별 부작용(이상사례) 민원신고 전화번호 단일화 요청(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, 19.3.5)

(고객지원담당관)

<주요 내용>

- 부작용(이상사례) 신고 전화번호가 분야별로 다양하여 소비자 불편
 - *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,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 1577-2488, 의약품부작용신고 1644-6223, 의료기기이상사례신고 02-860-4421(정보원), 화장품부작용신고(없음), 일반민원상담 대표전화 1577-1255
- 이를 1577-1255 등 하나로 통일하고,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상담원 또는 ARS로 자동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(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번, 의약품부작용신고는 2번 등등)

☐ 진행단계 : 완료

☐ 관리현황

- 국민콜110(정부민원안내)센터로 단일화하여 운영 중
 - 식약처와 권익위는 정부민원안내(110콜센터)가 범정부 허브콜센터로서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(110)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업무협약 체결('09.11월)
 - * 정부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식의약 전화민원 상담·안내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 도모
 -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, 우리처 종합상담센터(1577-1255) 연결
 - 우리처 분야별 부작용(이상사례) 신고 전화번호를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국민콜 110센터 상담원에게 교육 실시토록 요청함

- 1차 상담 : 민원접수 방법, 상담 관련 규정 등 단순·정형적인 일반상담
- 2차 상담 : 일반상담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법령·규정 관련 전문상담
- * ARS 안내 : 1번(식품), 2번(의약품 및 의료기기), 3번(화장품), 4번(의료기기)

☐ 향후계획

- 식약처와 권익위간 ‘전화상담업무 위탁협약 일부개정’ 추진(3월 중)

23. 김치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검토 요청

[소비자시민모임 문서 요청, '19.2.26]

(식품안전표시인증과)

<주요 내용>

- 다소비 식품이므로 나트륨 함량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필요

* 설문조사 결과 87.6%가 영양성분표시 필요하다고 응답(500명대상, '18.8.9~24)

☐ 진행단계 : 추진중

☐ 관리현황

- 식생활 트렌드를 고려하여 다소비식품, 어린이기호식품 등을 중점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 확대

* 현재 가공식품의 표시 의무화율은 42% 수준으로 저조

- 소비자 요구도·나트륨 등 저감화 정책 방향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단계적 의무화 확대 추진중

☐ 조치방안

-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('19~'20)

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